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분석)-中 은행들 달러 예금 급증..당국 위안 절상 억제 노력에 큰 장애
 - ◇ (초점)-기준금리 조정사이클과 반복되는 '베이스스 리스크'..RFR 선물이 대안될까
 - ◇ (초점)-韓 제조업 PMI 에 나타난 인플레이션 압력..기저효과 탓만 할 수 없다
 - ◇ (시장진단)-뉘트게 발동 걸린 원화 강세..위안/원 하락 동반 진행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작 이후 최대 규모 관중이 입장한 가운데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자동차 경주대회가 열리고 있다. (로이터/리테시 슈클라 기자)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6월4일 종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20(%)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20(%)
달러 대비	1,116.5	-0.1%	-2.7%	+6.5%	유로	1.2165	-0.2%	-0.4%	+8.9%
100엔 대비	1,014.0	-0.1%	3.7%	+1.1%	엔	109.49	0.3%	-5.7%	+5.2%
유로 대비	1,350.9	0.4%	-1.8%	-2.3%	위안	6.4040	-0.3%	1.9%	+6.7%
위안 대비	173.63	0.6%	-4.2%	-0.3%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20(%)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20(%)	다우존스	34,756.39	0.7%	13.6%	+7.2%
코스피	3,240.08	1.6%	12.8%	+30.8%	나스닥	13,814.49	0.5%	7.2%	+43.6%
코스닥	987.58	1.0%	2.0%	+44.6%	S&P500	4,229.89	0.6%	12.6%	+16.3%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0(bp)	MSCI APxJP	705.06	0.9%	6.5%	+19.8%
국고채 3Y	1.220%	5.8bp	24.4bp	-38.4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0(bp)
국고채 5Y	1.724%	5.1bp	38.9bp	-14.5bp	미국채 2Y	0.149%	0.8bp	2.8bp	-144.0bp
국고채 10Y	2.173%	4.1bp	46.0bp	+3.0bp	미국채 10Y	1.557%	-2.4bp	64.5bp	-99.8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20(%)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20(bp)
유가(WTI)	69.62	5.0%	43.5%	-20.5%	한국 5Y	18.1bp	-0.3bp	-3.9bp	+0.1bp
금(현물)	1,889.97	-0.7%	-0.4%	+25.0%	일본 5Y	16.9bp	0.2bp	1.9bp	-4.5bp
TR상품지수	2,902.93	1.3%	8.3%	+7.8%	중국 5Y	36.8bp	-0.3bp	8.8bp	-3.6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정부 홈페이지 ⇒ [CLICK HERE](#)

국내 주요 주간 일정

<6월 7일(월)>

- 금감원, 5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06:00)
- KDI 경제동향(2021. 6)(12:00)

<8일(화)>

- 한은, 4월 국제수지(잠정)(08:00)
-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6월호 발간 (10:00)

<9일(수)>

- 통계청, 5월 고용동향(08:00)
- 한은, 1분기 국민소득(잠정)(08:00)
- 기재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10:00), 1차관 브리핑(13:30)
- 기재부,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00:00)
- 한은, 국제원자재가격 상승배경 및 국내경제에 대한 파급영향 점검(BOK 이슈노트)(12:00)

<10일(목)>

- 한은, 5월중 금융시장 동향(12:00)
- 한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 (12:00)

<11일(금)>

- 한은, 5월 수출입물가지수(06:00)
- 한은, 창립 제 71주년 총재 기념사(08:00)
- 관세청, 6월 1-10일 수출입
- 기재부, 최근 경제동향(10:00)
- 한은, 5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12:00)
- 한은, 2021년 상반기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12:00)

해외 주요 주간 일정

<6월 7일(월)>

- 중국 5월 수출입 · 외환보유고
- 일본 5월 외환보유고 (08:50)
- 일본 4월 경기 선행 · 동행지수 (14:00)
- 유로존 6월 섹터지수 (17:30)
- 미국 5월 고용추이 (23:00)

<8일(화)>

- 미국 4월 소비자신용 (04:00)
- 일본 5월 은행대출 (08:50)
- 일본 4월 경상수지 (08:50)
- 일본 1분기 GDP 수정치 (08:50)
- 유로존, 1분기 GDP 수정치 (18:00)
- 미국 5월 NFIB 기업낙관지수 (19:00)

<9일(수)>

- 중국 5월 CPI · PPI (10:30)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0:00)
- 미국 도매재고 수정치 · 도매판매 (23:00)
- 캐나다은행, 정책금리 발표 (23:00)

<10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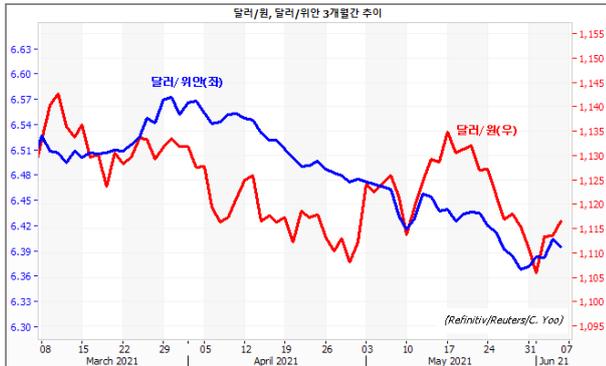
- 중국 5월 위안화 신규대출 (10-16일 중 발표)
- 일본 5월 기업상품가격지수 (08:50)
- 미국 5월 CPI (21:30)
-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1:30)
- ECB 통화정책 회의 결과 발표(20:45) 및 기자회견 (21:30)

<11일(금)>

- 연방준비제도, 분기 금융계정 발표 (01:00)
- 미국 5월 연방예산 (03:00)
- 일본 2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 (08:50)
- 미국 6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잠정치 (23:00)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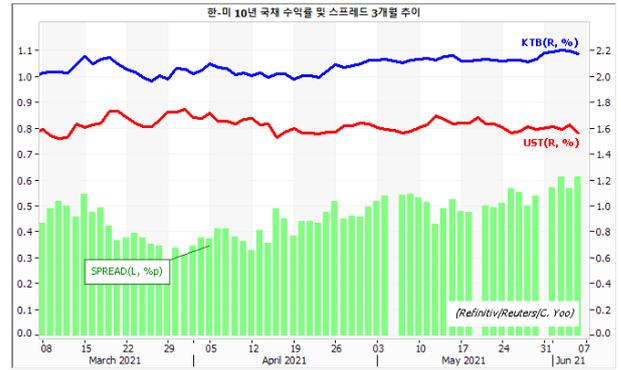
<외환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주요국 경제지표와 통화 정책 회의 결과에 따른 글로벌 달러 행보 따라 등락할 전망이다.
- 예상 주간 환율 범위는 1100-1125 원이다.
-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조기 긴축 우려는 다시 한발 물러섰다. 미국 5월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가 55만 9000명 증가해 전망치인 65만명을 밑돌았기 때문이다.
- 이 결과 미국 국채금리와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달러/원 환율은 박스권 하단 근처인 1110원 부근에서 한 주를 시작할 전망이다.
- 약달러에 따른 원화 강세 시도가 뒤따를 수 있는데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사자세가 더 적극적인 행태를 펼치 주목된다.
- 최근 국내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강화되는 점도 원화 강세에 우호적이다.
- 다만 이번 주는 주요국 정책 기조를 가능할 수 있는 핵심 경제지표와 정책회의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만큼 시장의 일방향적인 흐름을 마냥 기대하기는 힘들 듯하다.
- 중국 5월 수출입(7일)과 물가지표(9일)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최근 잦아든 위안화 강세압력이 이같은 지표 결과 이후 재차 변동성이 확대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 한편 10일(현지시간)에는 미국 5월 소비자물가가 나온다. 지난 4월 소비자물가가 전월 대비 약 12년 만에 최대폭인 0.8% 상승하자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인 바 있다.
- 아울러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 회의도 10일 예정돼 있다.

<채권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채권시장은 대내외로 대기하고 있는 각종 재료를 반영하며 변동성을 확대할 전망이다.
- 이번 주는 재료가 워낙 많아 접근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일단 채권 만기다. 오는 10일 대규모 국채 만기가 예정돼 있다. 일단 수급상으로는 우호적인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주말 2차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의사를 밝히면서 적자국채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다만 불안감은 남아 있다.
- 불과 한 주 전까지만 해도 추경 편성 논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부인했던 기재부다. 기재부가 현재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여당과 마찰음을 빚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 7일에는 당정이 손실보상법 문제를 논의한다. 여당과 정부는 소급적용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였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소급적용 대신 피해지원금 조기 지급으로 선회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기재부가 적자국채 없는 추경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
- 11일에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창립기념사가 나온다. 지난 2017년 이 총재가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 조정' 의사를 처음으로 밝힌 게 창립기념사에서였다.
- 대외적으로는 10일(현지시간) 발표되는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가 관심이다.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대 중·후반까지 올라 올해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주에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물가 지표가 또다시 변동성을 키울 재료가 될 수 있을지 관건이다.

(분석)-中 은행들 달러 예금 급증..당국 위안 절상 억제 노력에 큰 장애

상하이/싱가포르, 6월 2일 (로이터) - 중국 금융기관에 예치된 달러 예금이 너무 많이 늘어나 은행들은 달러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트레이더들은 이것이 가파른 위안 절상을 억제하려는 당국의 노력에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수출 대금과 투자 자금 유입이 늘어나면서 중국 은행에 예치된 외화 예금 규모는 지난 4월 처음으로 1조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공식 자료에 나타났다.

지난 2017년 말 외화 예금이 급증했을 때는 대규모 달러 매도가 나타났으며, 이에 2018년 초 위안이 큰 폭으로 절상된 바 있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번에는 외화 예금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이같은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이에 위안 절상을 제어하려는 정책 당국의 노력은 달러 현금을 보유한 수출업체 및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휘둘릴 수 있다고 말한다.

UBS의 로힛 아로라 아시아 외환 전략가는 "광범위한 달러 약세가 지속될 경우 이같은 (당국의) 포지셔닝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특히 달러/위안 환율이 6.25나 6.2를 뚫고 내려갈 경우 더욱 취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수준을 돌파하면 시장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 수준은 달러/위안의 2018년 저점과 2015년 반등 전 저점 수준이며 특히 현지 기업들의 매도세가 촉발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위안 가치는 달러 대비 주요 저항선인 6.4를 돌파하며 3년 만의 최고치까지 올랐고, 월간 기준으로는 5월 중 11월 이후 최대폭 상승했다.

이에 중국인민은행은 가파른 위안 절상에 따라 달러 예금이 위안으로 환전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해 6월 중순부터 금융기관의 외화 지급준비율을 5%에서 7%로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

◆ 규제에 나선 당국

인민은행의 이같은 움직임은 적어도 공개적으로 위안을 시장에 맡겼던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다.

인민은행은 2017년 이후 위안을 시장의 힘에 맡기며 외환보유액을 3조달러를 소폭 웃도는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뒤에서는 인민은행과 민간 부문의 개입이 이뤄지고 있었다.

인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16개월 동안 달러 예금은 2422억달러 늘어났는데, 이는 국내 총생산(GDP)의 약 1.8%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같은 기간 중국 채권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액(2200억달러)보다 더 크다.

또 팬데믹 기간 동안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가 크게 늘어나 은행들이 고객을 위해 위안으로 환전한 달러 규모가 2540억달러에 달했지만, 그 기간 인민은행이 흡수한 유동성 규모는 겨우 902억달러였다.

폴 맥클 등 HSBC의 글로벌 외환 전략가들은 31일 분석 노트에서 "기업 수입과 외국인 투자 자금 유입으로 과도하게 늘어난 달러 유동성 흡수 측면에서 민간 부문이 인민은행을 앞질렀다"고 말했다.

◆ 쌓이는 달러

달러 예금이 증가하는 이유는 경제학 원리만 알면 간단히 설명된다.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세계 최대 수준이고, 정부 자료에 따르면 달러 예금의 절반 가량은 수출 수요가 급증한 국내 기업들이 보유한 것이다.

이같은 중국의 뛰어난 경제 성적 덕분에 팬데믹에서 회복 중인 주식시장과 다른 주요국보다 높은 수익률 프리미엄을 가진 신용 시장으로 글로벌 자본이 흘러 들어갔다.

그러나 달러/위안이 1년 만에 11% 하락하는 등 무서운 변화에 직면한 상황에서 더이상 이같은 요인들은 달러 매도가 나타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많은 외환 트레이더들은 달러 추가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한다. UBS의 아로라 전략가나 HSBC의 맥클 전략가는 달러/위안 환율이 6.25까지 떨어질 수는 있겠으나, 그 뒤에는 다시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로라 전략가는 달러/위안이 연말까지 현 수준인 6.38, 맥클 전략가는 6.60 부근까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대부분 사람들은 또 관리들의 경고나 외화 지준율 인상 등의 움직임을 언급하며 인민은행이 위안 추가가 절상을 용인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중국 내 은행 소식통들은 신규 달러 대출 수요는 최저 수준으로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고, 자료에서도 지난 12월 외화 예금액이 외화 대출액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라의 스튜어트 오클리 현금 통화 거래 헤드는 "중국 내 달러가 많이 쌓이고 있어 압력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초점)-기준금리 조정사이클과 반복되는 '베이스스 리스크'..RFR 선물이 대안될까

서울, 6월 2일 (로이터) 임승규 기자 -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채권시장이 통화당국의 기준금리 조기 조정 가능성을 선반영하면서 '베이스스 리스크' 헤지의 유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현재의 헤지 수단으로는 베이스스 리스크를 충분히 제어하지 못한다는 지적 속에 올해 하반기 상장이 예고된 국채·통안채 환매조건부채권(RP) 선물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기준금리 조정 가능성 부각에 커진 '베이스스 리스크'

채권 단기 금리는 자금시장의 대규모 잉여에 힘입어 최근까지 하향 안정세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매파적 시그널이 확인된 5월 금통위 회의 직후 단기물 위주로 매물이 쏟아지는 통에 금리 상승폭도 확대되고 있다.

당장 7월 금통위 회의 때부터는 언제라도 기준금리 인상 소수의견이 출현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단기물 포지션이 무거운 기관들은 급하게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운용 메커니즘에 따라 채권을 무조건 보유해야 하는 곳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증권사 원금 북, RP 북 등 채권시장의 '큰 손'들이 대부분 채권을 들고 가야 하는 쪽이다. 이 때문에 이들 기관의 전략은 결국 헤지를 통한 듀레이션 조정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

채권 보유 포지션을 줄이려는 곳들도 지금처럼 기준금리 조정 초입기에 현물 시장에서 매수자를 찾기 쉽지 않을 수 있다. 역시 헤지가 관건이다.

문제는 증권사 등 단기채권의 헤지 수요가 큰 기관들의 채권 듀레이션은 1년 내외인 데 반해 가장 유효한 헤지 수단으로 꼽히는 3년 국채 선물의 듀레이션은 2.3년 내외라는 점이다.

기준금리가 조정되면 만기 1년짜리 채권이나 2년 이상 채권이나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 횡수와 시점 등에 따른 시장 예상과 수급 사정에 따라 채권 만기별로 영향을 받는 폭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가격과 헤지를 해놓은 3년 선물의 가격 흐름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베이스스 리스크 역시 자연스럽게 확대될 수 있다.

물론 이자율스왑(IRS)이라는 또 다른 헤지 수단이 있긴 하다. 하지만 IRS의 경우 CD 고시 금리의 경직성이라는 문제가 걸림돌이다.

A 은행 딜러는 "예전에 단기 채권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3년 선물로 헤지했다가 크게 당한 적이 있다"며 "급하게 3년 선물로 다 막았는데 채권은 아무도 사주지 않고, 3년 선물 가격은 외국인과 일부 기관의 작정 매수로 올라가면서 헤지는 헤지대로, 채권은 채권대로 터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물과 IRS 시장이 엇박자가 나면서 본드스왑발 혼란이 자주 나타났던 것을 감안하면 IRS 헤지도 완벽하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RFR 선물 도입이 대안될까..유동성 공급 관련

이같은 제반 여건을 감안하면 금융 당국과 한국거래소가 추진하고 있는 무위험지표금리(Risk-Free Reference Rate, RFR) 선물 도입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대체지표개발작업반은 지난 2월 국채·통안채 담보 RP 금리를 RFR로 최종 선정했다. CD 금리를 대체할 RFR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 당국이 내놓은 게 RFR 선물이다.

국내 RFR 선물은 오버나잇 RP 금리를 기반으로 3개월 평균금리를 산정해 만들어질 전망이다. 지금처럼 기준금리 조정 시기에 단기 채권을 헤지하기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한국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RFR 선물 도입을 위해 업계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며 "RFR 공시 시점으로 9월을 예상하고 있는데 공시가 어떻게 이뤄질지 보면서 설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목표는 RFR 선물의 연내 상장"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유동성이다.

지금과 같은 시점에 증권사들은 모두 헤지를 위한 매도를 위해 RFR 선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기준금리 인하 시점엔 정반대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시장 참가자들의 의문은 이렇게 주문이 한 방향으로 쏠릴 때 양방향으로 시장을 조성할 기관의 존재 여부다. 금융위가 시장 조성을 하는 금융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지만 시장에서 회의적 반응이 여전히 적지 않다.

B증권사 채권본부장은 "RFR 선물만 사용하는 건 아니고 IRS 페이와 연계해서 사용할 경우 효용성이 있을 듯하다"며 "RFR 선물을 주력 헤지 수단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부수적인 수단으로 사용해 단기물 헤지의 유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기준금리가 장기간 움직이지 않는 경우 유동성이 많지 않으리라는 것이고 막상 금리가 조정될 때는 모두가 한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라며 "시장 조성자가 의무적으로 거래를 받아주지 않으면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C증권사 채권본부장은 "현재 레포 금리를 기반으로 하는 스왑이 잘 되지 않고 있는데 이 오버나잇 스왑이 활성화되면 선물과 연계한 거래도 좀 더 늘어

날 수 있을 듯하다"며 "OIS 시장이 정착하기 전에 선물만 먼저 나온다면 활성화를 위해 굉장한 노력이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RP 기일물 거래도 활성화돼야 한다"며 "증권사의 포지션은 기본적으로 한 방향이라 은행이 시장 조성자 역할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은행 자금운용팀장은 "RFR의 문제는 CD의 영향력을 줄이기 전에 기본적으로 시장 정착이 쉽지 않다는 점"이라며 "CD와 RFR은 신용 스프레드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상품인 만큼 향후 정책 방향도 CD 연계 스왑을 없애는 게 아니라 오버나잇 인덱스 스왑 시장을 부수적으로 만드는 쪽에 맞춰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RFR 선물의 경우 증권사들의 포지션은 한 방향일 것이고 보유 채권의 듀레이션이 평균 3년 이상인 은행 입장에서 비즈니스 차원에서 연결되는 상품이 많지 않아 참여할 유인 자체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초점)-韓 제조업 PMI에 나타난 인플레이션..기저효과 탓만 할 수 없다

서울, 6월 1일 (로이터) 이지훈 기자 - 세계 경제가 코로나 19 충격에서 빠르게 벗어나면서 인플레이션 급등으로 인한 통화정책 정상화 가능성이 대두된 가운데 한국 제조업 투입 및 생산 물가 모두 5월 중 기록적으로 급등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최근 물가 급등에는 기저효과를 넘어 경기 호조도 함께 반영되고 있다면서 점차 기저효과는 약화하겠지만 수요 회복에 따른 물가 상승압력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 5월 제조업 물가 PMI 기록적 급등

IHS마켓사가 1일 발표한 5월 한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의 세부지표 가운데 투입재 가격 PMI는 계절조정 기준 70.1로 전월(68.1)보다 올라 2008년 1월 이후 무려 13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생산물 가격 PMI 는 59.6 으로 전월(58.1)보다 올라 2004 년 4 월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PMI 지표는 기준치(50)를 상회하면 전월보다 증가 또는 상승을 의미하고, 수치가 높을수록 빠른 상승을 및 하락률을 나타낸다.

IHS 마킷은 조사 응답자들이 원자재 가격 급등을 투입재 가격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면서 기업들은 비용 증가분 일부를 소비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우사마 바티 IHS 마킷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에서 "최근 지속되고 있는 공급망 교란 영향이 5 월 물가 압력의 추가 확대에 이어졌다"고 말했다.

▲ 기저효과 영향

이런 제조업체 물가 상승은 공식 인플레이션 지표인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충격에 낮아졌던 기저효과 영향과 경기 회복에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최근 로이터통신이 국내외 전문가 11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 일 발표될 5 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하면서 상승세가 전달보다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2012 년 4 월(2.6%) 이후 9 년 만의 최대 상승률이다.

작년 코로나 19 충격에 국내 소비자물가는 3 월부터 5 월까지 3 개월 연속 전월 대비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 차관은 1 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5 월 소비자물가는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면서 지표물가가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국 4 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2.3% 상승하면서 2017 년 8 월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다. 생산자물가도 전년 동월보다 무려 5.6% 급등하면서 약 9 년 만의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 기저효과가 전부가 아니다

전문가들은 5 월을 정점으로 향후 기저효과는 둔화하겠지만, 전 세계 경기 회복세 속에 수요측 물가 상승압력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 일 발표한 5 월 한국 수출은 금액 기준 전년 동월 대비 45.6% 증가해 32 년 만의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물량 기준으로도 15.6% 증가해 2017 년 9 월 이후 처음으로 물량과 단가가 함께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은 "중국도 보면 비용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동안 물가 압력에 대해 기저효과만 주로 언급되었는데 경기 호조에 기반한 비용의 제품가격 전가로 인한 물가압력 확대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전달과 비교해 얼마나 가파른지를 나타내는 PMI 지표 특성상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꼭 과거 레벨과 비교해 높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성우 DB 금융투자 수석연구원은 "지금은 가격 상승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라면서 "올해 들어 최근까지는 한국 수출이 단가 기준으로 크게 증가했는데 앞으로는 가격효과는 줄어들고 물량효과가 커지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

(시장진단)-뒤늦게 발동 걸린 원화 강세..위안/원 하락 동반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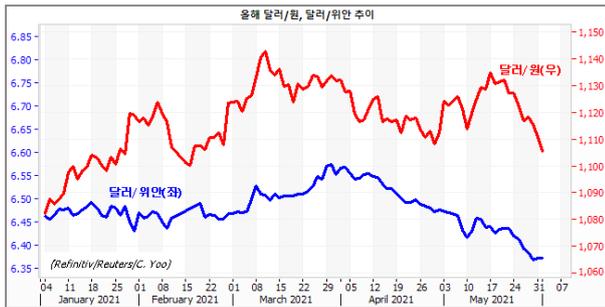
서울, 6 월 1 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6 월 첫 거래일 원화 강세에 힘이 실리면서 달러/원은 '빅 피겨'인 1100 원에 바짝 다가서는 가운데 위안/원은 뒷걸음질 치고 있다.

위안화 강세 모멘텀이 원화로 이동하는 조정 속에서 5 월 한국 수출이 작년 기저효과를 넘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자 이날 달러/원 환율은 레벨 부담을 딛고 추가 하락을 저울질하고 있다.

5 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5.6% 증가해 1988 년 8 월 이후 최대 증가율을 보인 데 이어 수출액은 507 억달러로 역대 5 월 중 1 위를 기록했다. 한편 무역수지 흑자도 30 억달러 수준으로 회복했다.

중국인민은행이 위안 강세를 저지하기 위해 외화 지급준비율 14년 만에 처음으로 5%에서 7%로 인상하자 이날 달러/위안 하락은 제한되고 있지만 달러/원 하락 압력은 거세지고 있다.

이날 오전 환율은 1105 원 선까지 내려 2월 22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 중이고, 전날까지 175 위안 선을 벗어나지 못했던 위안/원은 173 선으로 밀려나 있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달러 수요 겹히자 아래로 쏠리는 심리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역대급 물량을 쏟아내고 이와 관련한 달러 수요에 원화는 상대적으로 약세압력에 시달렸다. 지난달 외국인 국내 주식 순매도(유가증권시장 기준)는 약 8.5 조원으로 작년 3월 이후 최대였다.

그 결과 달러 약세에도 달러/원은 상승 변동성을 키웠고, 위안/원도 연중 최고치인 176 위안대로 급등했다.

물론 주식시장으로의 본격적인 외국인 귀환은 여전히 감지되지 않지만, 수급상 주식 역송금 수요가 증립으로 돌아선 게 확인되자 원화는 달러 약세에 더해진 위안화 강세를 뒤늦게 반영하는 모양새다.

중국인민은행 조치로 위안화 강세에는 일단 제동이 걸렸지만, 이날 원화 강세압력은 유지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이날 위안/원은 하락세다.

건조한 펀더멘털과 수급 개선이 뒷받침되자 역내외 시장 참가자들의 심리는 완연하게 아래쪽으로 형성되면서 달러/원 추가 하락 기대 속에 1100 원 하향 이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선박 수주에 따른 달러 공급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한 은행 외환 딜러는 "달러 약세 여건에다 위안화 강세까지 더해지고, 각종 지표들까지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외인 매물 압박이 덜어진 만큼 달러/원 고점은 이미 확인됐다"면서 "달러/원 1100 원 경계감이 적지 않지만 방향성이 나타나면 1090 원을 넘어 1080 원까지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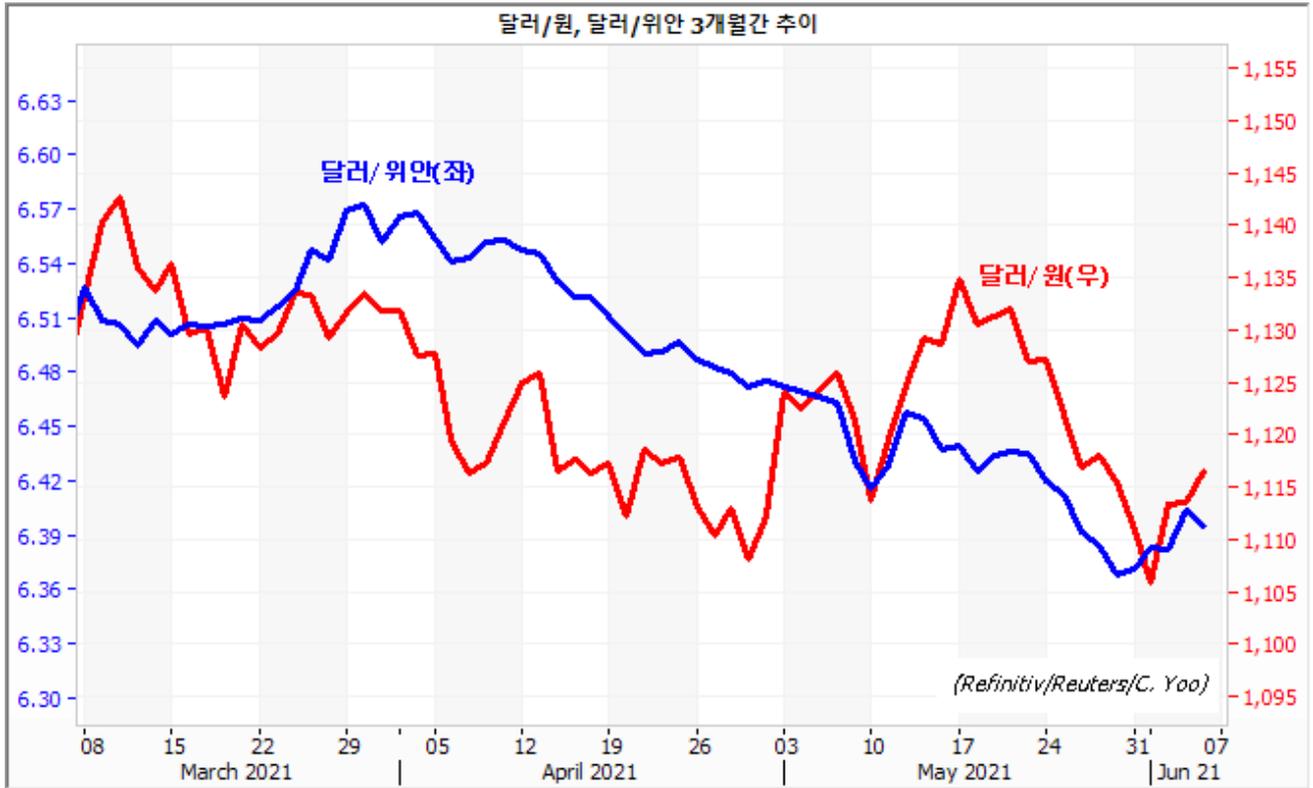
다른 은행 외환 딜러는 "역내외 시장 참가자들 심리가 완연하게 달러/원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다. 최근 역외도 달러/원 하락 베틱을 늘리고 있고 역내도 조심스럽게 숏을 구축하는 분위기"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1105 원 지지선이 예상보다 쉽게 뚫린다면 환율은 예상보다 1100 원 하향 이탈에 이어 하락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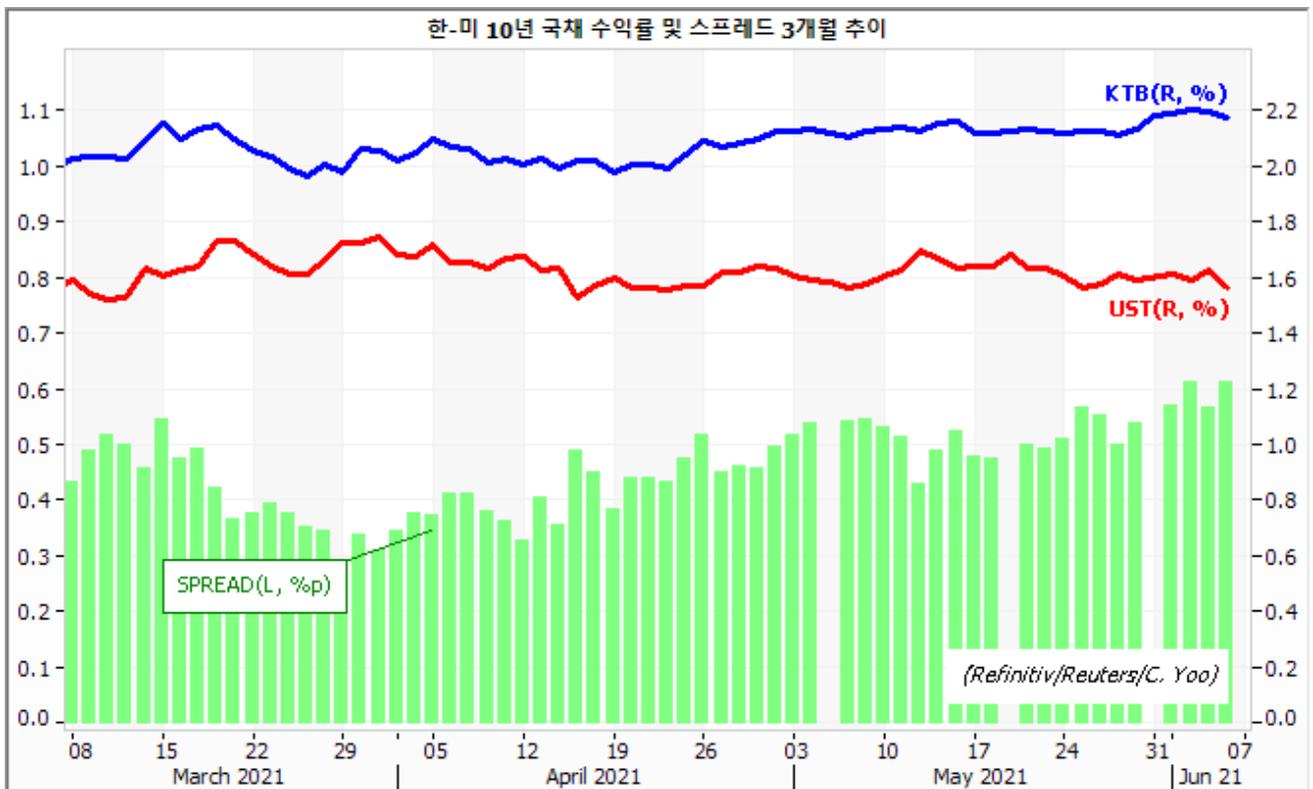
PHOTO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